

나는 다만 조금 느릴뿐이다

어쩌면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
사랑했을 이야기

강세형
지음

안 아픈척, 안 힘든척, 다 괜찮은척...

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, 그렇게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달려온
당신에게 보내는 담담한 위안과 희망



나는 다만 조금 느릴뿐이다

강세형 지음



 **해진민원출판사**

2016 · 할빈

图书在版编目(CIP)数据

我只是有点慢而已：朝鲜文 / 姜世馨著. --
哈尔滨：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，2016.4
ISBN 978-7-5389-2228-8

I. ①我… II. ①姜… III. ①随笔—作品集—韩国—
现代—朝鲜语（中国少数民族语言） IV. ①I312.665

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(2016)第091440号

书 名 /我只是有点慢而已
著 者 /姜世馨
责任编辑 /崔冬梅
责任校对 /宋英爱
封面设计 /李光吉
出版发行 /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
发行电话 /0451-57364224
电子信箱 /hcxmz@126.com
印 刷 /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
开 本 /640mm×960mm 1/16
印 张 /16.25
字 数 /200千字
版 次 /2016年4月第1版
印 次 /2016年4月第1次印刷
书 号 /ISBN 978-7-5389-2228-8 (民文)
定 价 /28.00元

· 차례 ·

나는 다만
조금 느릴뿐이다 ♦ 8



어른이 된	난 당신처럼 되고싶어요 ♦ 14
나는	작가 코스프레 ♦ 18
어지러워	싸우기도 하고 지랄도 하고 ♦ 26
	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♦ 30
	내 맘 같지 않은 지금 ♦ 33
	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싶어한다 ♦ 36
	끝내 떠오르지 않는 그리움이 그리워 ♦ 44
	간사한 마음 ♦ 47
	엄마의 김치 ♦ 52
	학교앞 허름한 노래방 ♦ 57
	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♦ 61
	젊은 우리 사랑 ♦ 65



우리가	너무 많은 일기장 ♦ 72
끊임없이	나는 참 평범하구나 ♦ 76
타인을	나는 원래... ♦ 84
찾아	뒤집을수 없는 관계 ♦ 89
헤매는	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커플 ♦ 93
리유	홀로 북극에 버려진 펭귄새 ♦ 100
	소멸의 순간 ♦ 106
	꼬박 일분간의 지극한 행복 ♦ 110
	친구의 연애 ♦ 115
	죽어버린 시계, 죽어버린 관계 ♦ 119
	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매는 리유 ♦ 123
	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♦ 127



우리는
모두
섬이다

- 마음이, 너무 바빠서 ♦ 134
착한 사람들에 의한 착한 세상 ♦ 140
투자회수가치 ♦ 146
우리는 모두 섬이다 ♦ 150
그리운 칭찬 ♦ 156
익숙함을 놓아버린다는것 ♦ 161
룩차와 김 ♦ 166
규칙놀이 ♦ 170
균열 ♦ 176
사라져버린 이야기들 ♦ 182
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♦ 185
우리는 누구나 “선택한 삶”을 살아간다,
기본적으로는 ♦ 191



나를
실망시키지
않았으면
좋겠다

- 나는 이런 어른과의 만남이 즐겁다 ♦ 198
형편없는 작가, 제법 괜찮은 작가, 훌륭한
작가, 위대한 작가 ♦ 202
뭘 그렇게 놀래 ♦ 206
다른 꿈은 엄두조차 나지 않으니까 ♦ 212
무모한 도전 ♦ 217
조금 무모한 일이 될지 모른다 해도 ♦ 220
자학과 자백 ♦ 224
적어도 나만은 실수하지 않는다 믿는 실수 ♦ 230
통각역치 ♦ 235
위악 ♦ 238
나는 1집을 사랑한다 ♦ 244
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♦ 248

어쩌면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
사랑했을 이야기



· 차례 ·

나는 다만
조금 느릴뿐이다 ♦ 8



어른이 된	난 당신처럼 되고싶어요 ♦ 14
나는	작가 코스프레 ♦ 18
어지러워	싸우기도 하고 지랄도 하고 ♦ 26
	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♦ 30
	내 맘 같지 않은 지금 ♦ 33
	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싶어한다 ♦ 36
	끝내 떠오르지 않는 그리움이 그리워 ♦ 44
	간사한 마음 ♦ 47
	엄마의 김치 ♦ 52
	학교앞 허름한 노래방 ♦ 57
	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♦ 61
	젊은 우리 사랑 ♦ 65



우리가	너무 많은 일기장 ♦ 72
끊임없이	나는 참 평범하구나 ♦ 76
타인을	나는 원래... ♦ 84
찾아	뒤집을수 없는 관계 ♦ 89
헤매는	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커플 ♦ 93
리유	홀로 북극에 버려진 펭귄새 ♦ 100
	소멸의 순간 ♦ 106
	꼬박 일분간의 지극한 행복 ♦ 110
	친구의 연애 ♦ 115
	죽어버린 시계, 죽어버린 관계 ♦ 119
	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매는 리유 ♦ 123
	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♦ 127



우리는
모두
섬이다

- 마음이, 너무 바빠서 ♦ 134
착한 사람들에 의한 착한 세상 ♦ 140
투자회수가치 ♦ 146
우리는 모두 섬이다 ♦ 150
그리운 칭찬 ♦ 156
익숙함을 놓아버린다는것 ♦ 161
룩차와 김 ♦ 166
규칙놀이 ♦ 170
균열 ♦ 176
사라져버린 이야기들 ♦ 182
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♦ 185
우리는 누구나 “선택한 삶”을 살아간다,
기본적으로는 ♦ 191



나를
실망시키지
않았으면
 좋겠다

나는 이런 어른과의 만남이 즐겁다 ♦ 198

형편없는 작가, 제법 괜찮은 작가, 훌륭한
작가, 위대한 작가 ♦ 202

뭘 그렇게 놀래 ♦ 206

다른 꿈은 엄두조차 나지 않으니까 ♦ 212

무모한 도전 ♦ 217

조금 무모한 일이 될지 모른다 해도 ♦ 220

자학과 자백 ♦ 224

적어도 나만은 실수하지 않는다 믿는 실수 ♦ 230

통각역치 ♦ 235

위악 ♦ 238

나는 1집을 사랑한다 ♦ 244

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♦ 248



나는 자꾸만 숨이 찼다.

사람들은 참 빨랐다.

그들을 쫓아가느라 지쳐

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면

자꾸만

어딘가로 숨고싶어졌다.

나는 다만 조금 느릴뿐이다

생각해보면,
언제나 나는 조금 느렸던것 같다.

밥을 먹는것도 느렸고, 길을 걷는것도 느렸다. 나는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, 이미 식사를 마친 맞은편 상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못해하는 표정이 내게는 참 익숙하다. 또한 누군가의 뒤모습은 내게 그의 앞모습이나 옆모습보다 익숙하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빨라서, 나는 뒤쳐져 그 뒤모습만 보고 걷게 되니까.

감정에 있어서도 나는 참 느렸다. 나는 누군가에게든 한눈에 반해본 적이 없다. 또한 내 감정을 깨닫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다. “너는 왜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? 뻔히 보이는데 나 좋아하는거.”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구나 깨달은건 그로부터도 한참후였다. 좋아했구나, 과거형으로 말해야 할만큼 한참후.

생각해보면,
어렸을 때도 나는 참 더딘 아이였던것 같다.

초등학교 1학년때, 받아쓰기 빵점을 받은 아이는 나밖에 없었다. 대

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전에 한글을 미리 배운다는건 나중
에야 알게 된 사실. 태어날 때부터 워낙 작은 미숙아였고 병치레도
많은 아이였는지라 엄마는 내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으셨다. 그후에
도 워낙 작고 성장이 더딘 아이였던 나는, 키로 번호가 매겨지는 초
등학교 내내 1번 아니면 2번이었고, 학교진도도 잘 따라가지 못해
나머지공부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.

하지만 나는 또 그렇게 느린 아이였는지라
내가 느리다는걸 깨닫는데도 한참이나 걸렸던것 같다.

나는 자꾸만 숨이 찼다. 학교를 졸업하고 방송작가생활을 하는 내내
나는 늘 숨차했던것 같다. 움직이는것도, 생각하는것도, 말하는것도,
마음을 정하고 바꾸는것도 사람들은 참 빨랐다. 그 사람들을 쫓아가
느라 지쳐 나는 언제나 숨이 찼고,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면 자꾸만
어딘가로 숨고싶어졌다.

“나 숨차. 좀 천천히 가면 안돼? 너는 너무 빨라!”

유난히 빠른듯한 친구와 길을 걷다 내가 멈춰섰을 때, 친구가 나를
돌아보며 룡담처럼 던진 말.

“네가 느리다고는 한번도 생각 안해봤니? 너 빠곤 다 빠르잖아?”

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것 같다. 멈춰서있는 내 주위를 빠르
게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론도 훌쩍 넘은 그제야, 겨우, 처
음으로.

아, 그럼 내가 느린걸수도 있겠구나.

어쩌면 그래서 나는 늘 숨이 찼던걸지도 모르겠다고. 나와 다른 속
도,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간대를 살고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걷고싶

어,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그렇게, 내내 숨이 차고 어지러웠던걸지도 모르겠다고.

“참 느리다. 읽으면서 계속 그런 느낌이 드네. 한참 바라보고 관찰하다가, 또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‘아, 그랬구나...’ 참 느리고 더딘것이 더 너 같기도 하고.”

몇년 새 조금씩 써둔 글이 어느새 꽤 모였을 때, 한 선배가 했던 말. 그제야 나는 또, 새삼 깨닫게 됐던것 같다.

아, 나는 정말 느리구나.

그러니 내가 쓴 글이라는것도 느낄수 밖에 없겠구나.

하지만 나는, 그래서 더 반가웠던것 같다.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, 그런 사람이 쓰고 그린것 같은 책이나 영화를 만났을 때, 나만 이렇게 아니구나, 세상에 나만큼이나 혹은 나보다 더 느린 사람들도 참 많구나, 반갑고, 그것이 위안이 되는 순간도 참 많았다. 느리지만, 그 느림 안에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, 나의 느림이 나 또한 싫지만은 않게 느껴질수 있었으니까.

나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,

그런 반가움을 안겨줄수 있었으면 좋겠다.

그가 정말 느린 사람이든, 아니면 한순간 불현듯 내가 참 더디고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 쓸쓸해진 누군가에게, 나는 느리지만 사실 “나만” 그런것은 아니라는.

나는 느리지만

나는 사실 “다만, 조금 느릴뿐”이라는.

반가움이 되여줄수 있다면 좋겠다.